



# ‘새롭게 떠오르는 대륙’

한순 사장이 들려주는  
중국 여행기(上)



사진 좌로부터 박정섭 대한제당 부사장, 서태수 남해개발 대표, 김무진 중앙케미칼 대표, 황석규 삼진농장 대표, 필자, 민병호 농수축산신문 기자

중국 은 모택동 사후에 나타난 탈이데올로기현상과 빠른 속도의 개방으로 중국인들의 의식구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농축산업의 기본 정책은 자급자족과 토지사유제의 완전 정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9월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18회 세계가금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에 참석코자 중국을 방문하게 됐다.

이번에 방문일행은 필자를 비롯한 △하성진 대구 목장 대표(전 경북대 교수) △김무진 중앙케미칼 대표 △박정섭 대한제당 부사장 △서태수 남해개발 대표 △황석규 삼진농장 대표 △민병호 농수축산신문 기자 등 7명이다.

우리 일행은 미수교국인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9

월6일 일본 후쿠오카 중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동경으로 갔다. 7일 10시 동경 나리다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항공기를 탔다. 비행기는 15시30분에 북경 국제공항에 도착, 간단한 입국수속을 마치고 미리 마중나온 중국 철도청 소속 청년관광부 리서 등 과장의 안내를 받았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도중에 우리 일행은 리 과장의 설명으로 중국의 현재 정치, 사회, 경제, 문화부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중국은 10년전 모택동 사후 등소평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모든 농장들이 개인 또는 협동농장 체제로 개선, 1백40%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한다.

특히 3~5년 기간을 두고 생산량의 70%를 정부에 헌납하고 30%는 개인이 소유하여 이제 완전한 개방시대를 맞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인구 10억중 80%가 농업에 종사하여 국가정책이 중공업보다는 농업에 편중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특히 중국의 농업관련학자들은 오는 2천년대에는 중국에 식량위기가 올 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현재 중요한 것은 식량증산을 위한 농수축산업정책에 있다고 한다.

중국의 기본농업정책은 쌀,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의 자급자족이 기본 목표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옥수수, 콩 등을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는 수출한다는 전략하에 농업정책이 수반된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내에서 농업은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기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강력한 당 및 국가관료들과 완전한 자유체제를 주장하는 측과 심한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 최근의 중국 실상이다.

이렇듯 중국의 농업정책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으로 전체인구의 8할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



일명 「베이킹타운」이라고 하는 요리로 공항, 역대합실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으며 도시인들의 가계의 대부분이 음식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농업정책은 이제 개방화시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경제에서 비롯된 사유농장들의 인정은 사실상 생산성 향상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중국 내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우리 일행은 북경시 북서쪽에 위치한 후랜드스립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 호텔은 1954년 소련국가의 투자로 건립돼 그동안 중국을 찾는 외국 주요인사들이 머물렀던 고급호텔로 지금도 외부는 화려했지만 내부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는 호텔이 70여개가 있으나 '90년 아시안게임 유치로 70여개를 더 신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첫 밤은 흥분과 긴장으로 뜬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시내관광에 들어갔다.

말로만 듣고 매스컴으로 안 중국은 너무도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유스러운 중국인들의 생활과 행동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마음대로 여행이나 친지를 방문하는 것은 마치도 우리나라

보다도 오히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우리 일행은 9월8일 중국의 명소인 천안문과 자금성(황제가 살던 궁)을 리과장 안내로 관광했다. 천안문 앞에는 아편전쟁에 희생된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영웅비, 모택동기념관, 중국은행, 중국인민회의장 등 TV에서 본 것 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

특히 자금성은 대지가 1백만평에 건평이 20만평으로 중국의 황실이 그동안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지냈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북경시의 시가지는 온통 자전거행렬과 2개로 연결된 전기버스가 콩나물시루 같이 많은 인파를 싣고 다녔다. 또 아파트단지과 사무실이 혼잡하게 있어 도시정리가 안된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외국인 전용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천단공원을 관광했다.

천단공원은 북경시 남서쪽에 위치한 중국 최대규모로 20만평에 조경이 잘 조성된 곳이다. 중국은 용(龍) 해가 오면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해마다 황제는 이 공원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공원내에 있는 조형물은 순수한 나무로만 건립되어 있는데 1년이 12월로 12개의 기둥과 24절기를 상징하는 24개의 작은 기둥 등으로 된 건물이 가운데 위치해 있다.

또한 공원에는 황제가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묵욕하는 장소와 하늘과 대화하는 곳 등 황제가 친필로 축문을 써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다.

중국의 특징적인 전설은 행운의 동물을 용으로 뜻하고 9수가 또한 행운을 표시한다.

우리 일행은 다음날 9월 9일도 리과장 안내로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1백20km 떨어진 천진항구도시 관광길에 올랐다.

찌뿌둥한 날씨에 간간이 뿌리는 비가 고향땅을 더욱더 생각케 했다. 중국은 모든 것이 자유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자동차는 도(道)와 도사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경시에서 타도를 갈 때

는 반드시 신고서를 목적지 도교통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북경에서 천진까지는 도로포장공사가 한창으로 1백20km밖에 안되는 거리를 무려 3시간 30분이나 소요됐다. 그만큼 도로 사정이 안좋은 것을 증명해 준다.

도로주변에는 모두 옥수수 밭으로 북경서 천진까지 가는 도중에 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천진항은 인구 4백만명의 상업도시로 일제 때는 군항으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주로 이 항구는 현재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곡류수출과 기타 원료 등을 수출입하는 주요한 항구로 이용되고 있다.

필자는 외국여행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미수교국은 처음 여행이다. 그러나 어느 여행보다 편하고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일찌기 없었다.

중국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촌이 잘살면서 자녀들 공부를 안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가려는 사람은 시골에서 3년동안 일을 해야 하고 과거 공산주의였을 때 고등학생 가운데 4%만이 진학했지만 현재는 15%가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인 가족의 식생활비는 2백원(한화 4만원)이면 충분하고 일반 직원들이 정년퇴직하면 70%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고유층은 1백% 지급받고 있다.

또한 중국인이 외국에 3개월 이상 있다 들어갈 때 한 종류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2년 이상일때 4종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한다.

중국방문 3일째(9월9일) 우리는 만수산 서태후별궁을 보았다. 이 만수산은 서태후의 권세로 20만평의 호수를 파고 그 흩으로 산을 만들었다고 한다. 일행중 어느 한 사람은 우리나라 5공화국 시절에 모씨가 청남대를 만들 때 아마도 만수산을 연상하고 만들지 않았느냐하여 한바탕 웃었다.

만수산에 이어 일행들은 자금성 옆에 있는 북해공원을 갔다. 이 공원 역시 명나라때 땅을 파서 호



북경에서 50km 떨어져 있는 만리장성.

수와 산을 만들어 공원을 만들어 중국인들의 기질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9일 저녁에 비로소 본래 목적인 우리 심포지엄에 등록을 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사람들이 「만만대」라고 늦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번에 우리 일행도 당황했다. 왜냐하면 행사전날인 데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전날 밤에야 등록을 받아 이들의 생활방식을 알게 됐다.

후랜드십호텔 2동에서 우리는 1동으로 옮겨와 다음날 심포지엄 개막식에 참석했다. 세계 40여개국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은 주로 오리사육과 가공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우리는 별도로 김생민 중국농림수산부 수출입담당자(한족)의 안내로 북경에서 택시를 타고 약 20분간 가서 「향정부」라는 곳에 도착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국 북경시 해정구 동부왕에 있는 「향정부」는 지난 78년 등소평의 문화대혁명 이후 인민공사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 상주인구가 3만천여명에 농업, 축산, 수산, 임업, 공업 등이 골고루 발달되고 있는 곳중의 하나로 꼽는다.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을 협동체제로 발전시키고 있는 향정부는 농수축산물외에 위생종이, 동물약품, 인체약품, 건축자재, 철골, 기계부품, 공구, 화장품, 비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축산업 가운데 낙농업의 경우에는 2개의 목장에서 착유우 7백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목장은 상오 7시, 하오 3, 9시 등 3차례 착유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당 1일 평균산유량은 20kg이고 연평균 유지율은 3.57%를 기록해 현지에서는 우수한 목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젖소에 대한 인공수정은 수임정액과 목장내 중모우에서 생산한 정액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선한 우유를 시내에 공급하기 위해 탱크로 리차 1대를 보유하고 생산된 우유는 1kg에 76전(한화 1백52원)에 국가가 구매한다.

향정부 내에는 양계장도 2곳에 산란계 30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반면 1단케이지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양계장은 일본 농림부 농학회와 기술교류를 통해 일본기술자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또한 자체 종업원을 일본양계장에 단기과정 연수교육을 보내 선진양계 기술을 습득시키고 있어 양계업은 비교적 선진화됐다고 본다.

'82년 설립된 당시 이 양계장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장식에는 중국 왕진부총리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이 양계장에는 자체 부화장, 종계장을 갖고 부화기 10대(국산), 종계 5천수(하이섹스 백·갈색, 하이라인 등)를 보유하고 수정률이 91%에 달한다는 것.

생산비의 68%를 차지하는 사료를 양계장 부근 북

“  
**중국 내에는 EDS와 ILT 질병은 없어  
 백신도 없다**  
**양계장은 1인당 5천수를 관리하고  
 평당 12마리를 사육하여 통풍이 잘 된다고  
 농장장은 말한다**  
 ”

경사료공장에서 월 5천톤을 공급받고 있다.

닭 질병예방은 마력병은 병아리발생 24시간내에 1회하고 뉴캐슬은 24일, 40일, 90일 1백20일령에 접종한다.

또 계두는 25일, 80령에 하고 IB는 7일, 1백40일령 2차에 한다.

한편 중국 내에는 EDS와 ILT 질병은 없어 백신도 없다. 양계장은 1인당 5천수를 관리하고 평당 12마리를 사육하여 통풍이 잘 된다고 농장장은 말한다.

향정부내 농가중 50% 이상이 5백수에서 1천수의 닭을 사육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산란계 마리당 연간산란량은 16.5kg으로 계란은 황란이 1kg에 4원 백색이 3.8원으로 갈색과 백색란의 차이는 2전을 보이고 있다. 또 산란계 사료는 kg당 50전(한화 1백원)으로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밖에 향정부는 쌀, 밀,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벼는 1ha당 7톤, 밀 4.9톤, 옥수수 6톤을 생산하여 연간 총 곡류는 5천5백톤을 생산하고 있다.

또 채소밭, 과수원도 각각 2백ha에서 각종 채소류 과일을 생산하고 양어장에서도 연간 63톤의 붕어, 잉어 등을 생산한다. 가구당 소득도 최하 2천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올리고 있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인민공사 때보다도 소득이 2~5배 신장된 것이다.

중국북경시 외곽에는 이같은 향정부가 2백90개가 있어 중국농업의 산실역할을 하고 있다. 양기희